사 설

지황수매 의사 없는가

얼마전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측은 국내산 건지황을 1㎏당 3천원에 수매하겠다는 뜻을 통고해 왔다. 생산시기인 작년 9월부터 수매요청을 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이제와서 생산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수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매의사가 없다는 것이나 매한가지가 아닌가.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맥없고 허탈한 심정이 아닐수 없다.

지황은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한약조제용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 약재이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서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품목이다. 그나마 소량 재배되고 있는 국내산 재래종 지황이 있긴 하나 수량면에서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농가에서는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재래종 지황이 자취를 감춰감에 따라 한국생약협회는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다수확 품종을 도입, 국내 농가에 시험재배를 거친후 지난해 본격적으로 계약재배를 시도했다. 물론, 농가재배후 판로확보에 장애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수급조절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도 얻었다. 따지고 보면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약공측에 이번 국내산 지황 수매건이 그리 새삼스럽기만 한 사실은 아닌 셈이다. 현재 국내산 지황이 수입산보다 다소 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매에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들은 다른 부분에서 그 이상의 상대적인 특혜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공은 생산자보호 차원에서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명 '쿼터품'을 연간 수천톤씩 배정받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므로서 사실상 특혜를 입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굳이 한약관리규정의 국내산 수매의무조항을 들추지 않더라도 특혜성 이익의 일부분은 생산자보호차원에서 국내산 수매에 재투자 돼야 하지 않겠는가.

WTO출범 이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무대를 이루면서 이제는 정말 동정에 호소하는 식의 국산품애용운동은 역부족인 시기라고들 말한다. 농민들 스스로 당당하게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리란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생약농업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소비자관련 단체들의 지원 없이 국내생약농업이 농민들 힘만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때 수출까지 해 오던 지황이 이제 멸종위기에 있는 지금 다수확품종의 보급은 우량품종개발 측면에서 수입개방화시대 시대적인 과업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국내산 지황 수매문제는 꼭 더하기 빼기식의 '셈'으로만 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지황 종근 도입과 계약재배시도가 애초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출발했듯 약공은 실리만을 따지는 장삿속에서 한발 물러나 국내생약농업의 육성이라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수매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생약부문

전국 40개소 지원키로

96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부가 지난 95년 부터 Package화 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 중 생약부문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96년 올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40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 3, 강원 5, 충북 4, 충남 5, 전북 6, 전남 5, 경북 8, 경남 4개소 등 총 40개소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작년 66억 1천5백만원에서 다소 확대한 88억2천만원 상당.

1패키지를 이루는 표준사업내용은 ·공동육묘포 설치 ·생약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생약집하장 등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국고보조 10%, 지방비 보조 10%, 융자 60%, 자산 20% 비율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신규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생산자 조직)중 생산유통(가공)시설을 희망하는 자 누구나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국의 시군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소재지 국번+5959) 각시도 농산물유통과(유통특작과), 시군산업과로 연락하면 된다.

소위원회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위는 1월3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농진청, 한약협회, 도매협회, 생약협회, 약품공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국내산 지황수매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96 제1차 이사회

생약협회 '96년 제1차 이사회가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서울 용두동 소재 경동프라자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는 △95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심의 의결 △제27차 정기총회 일자 결정 및 정관 일부 개정 등이다.

정선군사무소 개관식에 참석

이종용 회장은 지난달 26일 생약협회 정선군 사무소 개관식에 참석, 생산농민들을 격려했다.

정선군 부군수를 비롯 군내 생산농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회장은 『WTO 출범으로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을 이루게 됐다』고 전제하고 『수입개방화에 맞서 국내생약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길뿐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종용 회장은 또 행사 후 생산농민 회원들과 한자리에서,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과 애로점, 건의사항등에 대해 귀담아 듣고 국내 생약농업의 진로에 대해 간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종용회장은 정선군 사무소 개관식에 참석 생산농민들을 독려했다.

제초제 함유 비닐멀칭제

올해 시범 시판

제초제 함유 멀칭용 비닐이 올해 안에 제품화 돼 시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개발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 개발된 제초제 함유비닐 멀칭제는 95년 설분시험과 재배시험이 끝나 올해는 참여업체를 선정, 제품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지황 신품종 육성

지황 1호

국내 최초의 지황 신품종 「지황1호」가 탄생됐다.

지황1호는 지난 93년 중국으로 부터 지황종자를 도입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에서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특성 및 생산력 검정과 지역적응, 농가실종 시험을 통해 육성돼 온 신품종.

지난달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우량품종 종자심의회 심의결과 우량품종으로 선정, 「지황1호」로 명명키로 했다.

작물시험장 시험결과에 따르면 뿌리굵기가 재래종이 9·2㎜에 비하여 지황1호는 34·6㎜로 약 4배가 굵고 주당 근중(根重)도 1백76㎏으로 재래종 보다 56㎏인 월등히 높았다.

근수(根數)도 재래종이 4·2개인 반면 지황1호는 5·8개로 조사됐으며, 수량성에 있어서도 지황1호가 3배이상의 높은 수량성을 나타냈다.

작시 특용작물과 성낙술 연구관은 『지난해 작물시험장과 충북 지역에서 각각 지역적응 시험을 한 결과 재래종 수량은 10a당 5백81㎏인데 비하여 지황1호는 10a당 2천2백96㎏으로 재래종보다 신품종이 2백95%정도 증수됐다』고 밝혔다.

신품종 지황1호는 재래종보다 개화기가 빠르고 중북부 산간지를 제외한 전국 지황 재배지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에 가급적 휴립(畦立)재배 하는 것이 좋으며 꽃대 적기 제거가 수량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재래종에 비해 시들음병, 점무늬병에 약한 편이긴 하나 「지황1호」는 재래종보다 엑스함량이 비교적 높고 무엇보다 수량성이 월등히 뛰어나 앞으로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소득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방

△이문섭 이사 △권순직 이사 △김성배 이사 △배성한 이사 △이영갑 이사 △이종렬 이사 △신현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김인육 경기 연천군 공판장장 △한만엽 경기 수원시 공판장장 △임완수 강원 태백시 사무소장 △조광호 강원 정선군 사무소장 △이한송 충북 제천군 사무소장 △정일영 전남 구례군 사무소장 △최윤경 전남 장흥군 사무소장 △최성기 전남 보성군 공판장장 △최병만 전북 김제시 공판장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사무소장 공판장장 96년1월3일부 ▲정봉화 전남 순천시 사무소장 96년1월4일부 ▲어재복 강원 강릉시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공판장장 겸직) ▲황성우 강원 원주시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공판장장 겸직) ▲함승호 강원 평창군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공판장장 겸직) ▲정준순 서울 동대문구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6년2월1일부

인사

「免」

▲조대현 강원 횡성군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 ▲합영완 강원 평창군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 ▲십홍섭 강원 영월군 사무소장 96년1월15일부 ▲최윤철 강원 정선군 공판장장 96년1월15일부 ▲김환래 강원 양양군 공판장장 96년1월15일부(사무소장 유임) ▲오영주 경기 이천군 공판장장 96년1월15일부

「任」

▲조태수 서울강남구